



실시간뉴스

아만다 사이프리트 '파더 앤 도터', 韓 선 개봉

업 > 산업 > 재계

롯데그룹, '소셜 임팩트 콘퍼런스" 개최... 토론회서 전문가들 "책

등록: 2015-11-05 17:58



11월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롯데 소셜 임팩트 콘퍼런스 2015에서 롯데면세점 김보준 마케팅부부장(가운데) 등 발제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서울=포커스뉴스) 롯데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롯데그룹은 지난 4일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아르콘, ARCON)와 함께 '제1회 롯데 소셜 임팩트 콘퍼런스 2015'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효과적 CSR 전략과 경험(Impact CSR Strategy & Practice)'이라는 주제로,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기업가 정신과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외 기업, 재단 CSR 담당자, 학계와 관계 CSR 담당자, 전문가 500여명 등이 참석해 기업가 정신이 현대 사회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례를 분석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씨어도르 루스벨트 맥럭 루스벨트 그룹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강조하며 "최근 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 책임질 줄 아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의 유무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또 "리더십은 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리더, 책임의식이 있는 리더, 봉사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틴 노이라이트 ISO26000집행위원장은 "폭스바겐은 연간 엄청난 돈을 CSR에 투자했지만 경영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조직내의 CSR은 생산, 경영 등 모든 부서와 통합돼 움직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노이라이트 위원장은 또 맥스앤스펜서를 예로 들며 "파산직전의 기업이 CSR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켰을 때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CSR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윌리엄 프란시스 발렌티노 칭화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인도는 해외기업이 자국에서 활동할 때 CSR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소비자가 기업의 CSR을 평가하고 있다"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전체 조직이 바뀔 때 진정한 CSR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보준 롯데면세점 마케팅 부문장은 "롯데면세점은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이룩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언더 스탠드 에비뉴(Under Stand Avenue)가 있다. 세계1위 글로벌면세점을 목표로 젊은 도시 성동구에서 기업, 지역, 비영리단체가 함께 창조적 공익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서우 기자 buzacat@focus.kr